

나훔 1

1.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니느웨에 대하여 말씀하실까?

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유다이다(12-15): 니느웨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기 백성들이 듣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그냥 버려두시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2. 니느웨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나훔 외에 누가 있는가?

요나: 내용은 조금 다르다. 요나는 회개를 외쳤지만(BC 793-753) 150년 정도 후에 등장한 나훔(BC 633-612)은 멸망을 선포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3.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2-8)?

보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하지만 중한 경고를 발하려고 할 때는 인자나 사랑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온통 투기, 보복, 진노 투성이다. 그렇게 보면 3, 7절이 이상하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사랑과 열심의 또 다른 모습일 뿐 별 개의 것이 아니다.

4. 징계하시는 마당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되나(3)?

잘 참는 분이 노하면 더 무섭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지만 일단 노를 발하면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다. 7절도 비슷한 맥락이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하시지만 끝내 찾지 않으면 반드시 진멸하신다(8). 하나님에게 이런 양면이 있다. 자녀된 자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 맛보아 알고, 대적하는 자는 분노만 맛보게 된다.

5. 하나님은 회리바람(토네이도)이나 광풍(태풍)을 밟고 다니신다. 그러면 먼지처럼 구름이 일어난다(3). 이런 표현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나님의 위엄: 회리바람이나 광풍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설명이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도 이런 자연현상이 나타났었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출 19:16).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것(4)과 산이 진동하거나 녹는 것도 마찬가지다(5). 가장 기름진 바산과 갈멜도 쇠하는 판에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

6.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대적을 온전히 멸함(9):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7. 진멸당할 앗수르의 세 가지 모습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클어진 가시뿔: 악이 번성하여 도무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술에 취한 자: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점에서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지푸라기: 불이 붙으면 정말 잘 탄다.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8. 여호와께 악을 피하는 한 사람은 앗수르의 왕이 틀림없다(3:18). 그렇다면 그가 권하는 사특한 짓이 무엇일까?

앗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한 말(왕하 18:19-25, 27-35): 신성모독적인 언사를 예사로 내뿜는다. 유다가 범죄하여 징계를 당할 처지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당하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자신이 이루어 줄 것이니 요는 항복하라는 것이다.

9.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의어가 되는가?

앗수르를 멸절시킬 것: 유다를 괴롭게 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앗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했을 뿐이고 반드시 징계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다가 하룻밤에 185,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한다(왕하 19:35-36). 결과적으로 망하고 만다.

10. 앗수르를 가리키는 말은 복수형인데 왕을 가리키는 말은 당연히 단수다. 유다를 가리키는 말은 2인칭 여성단수형(12절의 '너')이다. 14절의 '네'는 원어상으로 남성형 어미가 쓰였으므로 유다가 아니다. 그러면 14절의 '네'는 누구를 가리킬까?

앗수르의 왕: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이 표현은 왕이 내리는 포고령의 형태다.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과 신들을 멸하겠다는 내용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11. 갑자기 웬 아름다운 소식인가?

앗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12. 다음 구절과 흡사한 내용이 어디에 있더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15a)

사 52:7(롬 10:15): 롬 10:16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인데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사 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로마서보다 이사야서에 이 구절이 있음을 아는 자는 복되도다!

나훔 2

1. 본격적으로 니스웨에 대한 파멸을 묘사하는데 영풍하게 보이는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일단 괄호로 묶어두고 읽어야 할 구절은 몇 절인가?

2절: 1장 15절과 마찬가지로 니스웨의 멸망을 유다의 입장에서 묘사한 부분이다. 일단 빼고 읽어야 읽기가 쉽다.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과거, 앞부분은 가까운 장래의 일이다.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한 과거는 앗수르에게는 영광이지만 곧 회복될 미래는 앗수르의 멸망이다.

2.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단단히 준비하란다(1). 격려하는 말인가?

일종의 조롱: 죽어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고 괴롭게 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2). 그러니 아무리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을 써보라는 것은 비꼬는 말이다!

3. 3-4절은 니스웨를 치러 올라온 자를 가리키지만 5절은 좀 애매하다. 니스웨 군사를 가리키는지 적군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번역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개역은 니스웨를 가리키는 걸로 번역되었다. '쥬권한 자'도 사실은 복수형이다. 그러면 엎드릴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들일까?

정예병들: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 병사들인 셈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훈련된 병사들이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4. 적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3-4)에 비하면 니스웨의 멸망은 너무 간단하다(6). 겨우 다섯 단어다. 왜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걸까?

길게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무너지고 난 결과만 치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정명대로만 말은 '숙명처럼'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라는 뜻이다. 이 말씀이 아마도 산헤립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시기에 주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힘을 주지 않았을까(왕하 18-19, 사 37장)?

5. 니스웨를 '물이 모인 못'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국력이다. 모든 강물이 흘러드는 못처럼 사람들이 많았던 곳, 강성한 곳이 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침략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도망쳐버릴 것이다. 사람이 사라지면 니스웨도 황무지가 된다(10).

6. 니스웨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엄청난 은과 금을 소유했다고 한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거둬들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특별히 유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들도 그렇게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이다(왕하 18:14-16): 히스기야 시절에 그렇게 많은 은과 금을 빼앗고도 재차 침입하여 괴롭혔던 일을 생각하면 깨소금 맛이다.

7. 잘 나가던 시절의 니스웨의 별명이 무엇인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사자의 굴: 약탈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12). 그렇게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찢었겠는가? 잔혹했다는 말이다.

8. 그렇게 잘 나가던 니스웨를 누가 멸망시키는가?

하나님: 실제로는 바벨론(갈대아 사람)과 메데의 연합군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

9. 니스웨의 흥망성쇠를 선지자가 사용한 표현을 빌리면 한 때 '물이 모이던 못' '사자의 굴'이 '헛불'과 '번개'를 만나서 무엇이 되었다고 하면 좋을까?

슬피 우는 비둘기(7):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끼에 지나지 않는다(사 10:5-15). 그런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들이기에 이런 결말은 당연하다.

나훔 3

1. 니스웨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 많기 때문인가(1)?

피, 궤홀과 강포, 녹탈: 주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다. 고대에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모든 강대국들이 같은 죄를 지은 것 아닌가? 유독 니스웨만? 같은 짓을 했더라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탓이다. 일반적인 심판은 따로 있지만 니스웨나 바벨론이 징계를 받는 것은 특수한 경우이다. 스승을 판 사람이 많겠지만 가룟 유다가 특별한 이유처럼!

2. 긴박한 전쟁 장면은 서술형보다 현장 모습을 그냥 나열하는 것이 더 긴박감을 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4)?

(열국을 음행과 마술로) 미혹함: 이스라엘의 음행은 우상숭배를 뜻하는 것이지만 니스웨의 음행은 주로 정치적 술수를 의미한다. 아하스나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난 공물을 받고도 약속을 어기고 다시 유다를 침공했다(대하 28:20-21, 왕하 18:13-16). 이런 음행과 마술로 니스웨가 멸망을 당했는데 오늘날도 국가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아하스가 무수한 은금을 앗수르 왕에게 바치고 앗수르의 재단을 본떠서 성전에 다른 재단을 세운 적이 있다(왕하 16:7-18). 죄인은 아하스다. 앗수르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

음녀처럼 미혹한 것(4)이 아마 이런 것을 가리킬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이야 소위 선진문명을 본떠서 무슨 짓을 하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니스웨가 만국을 미혹케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관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4. 마술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요즈음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술사들은 어떻게 하지?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 점치는 것을 가리킨다. 교묘하게 눈을 속이는 오락의 일종으로서 마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5. 하나님께서 니스웨를 치시면 세계의 중심이었던 니스웨는 무엇이 되는가?

구경거리: 열국을 미혹하던 시절에는 가장 예뻐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조롱하는 재미로 구경하는 처지다(5-6). 그런 구경꾼들마저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가 된다(7). 그렇게 무너진 니스웨는 다시 재건되지 못했다.

6. 니스웨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어느 도시의 운명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가?

노아몬: '아몬(애굽의 주신, 렘 46:25)의 도시'라는 뜻이다. 나일 강 상류에 있는 테베를 가리킨다. 고대 애굽 문명의 중심지였다. 구스(에디오피아)와 애굽(좁은 의미로 나일강 하류), 북과 루빔(리비아)이 동맹 혹은 협력관계였으니 가장 강대한 도시였다.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물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상적인 방어 수단으로 여겼다. 그런 노아몬도 깨끗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물며 주변 여권이 노아몬보다 못한 니스웨가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니스웨의 멸망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라서 이런 예를 들었을 것이다.

7. 10절의 묘사는 앗수르가 노아몬을 점령했을 때 한 짓이다(BC 663). 장차 니스웨가 무너질 것과 니스웨가 과거에 행한 짓이 무슨 상관인가?

장차 니스웨도 꼭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11): 앗수르는 점령한 지역에서 아주 잔인하게 굴었다고 한다(11, 19).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8. 니스웨는 대단히 견고하고도 큰 성이었다.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정들이 여인 같기 때문: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군사가 싸울 용기가 없다면, 사기가 꺾였다면 무용지물이다. 견고한 요새나 국가, 교회도 내부의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공격보다는 스스로 무너지는 수가 훨씬 많았다.

9. 벽돌가마를 수리하라는 것은 성읍이 아직 그리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벽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비유권대 그렇다는 것이다. 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적에게 완벽하게 포위될 것: 물로 둘러싸인 니스웨가 물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10. 메뚜기(=늪, 황충)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구 먹어치운다(대적이).

개체 수가 많다(니스웨의 인구; 인구가 곧 국력이던 시절에 그렇게 많아도 소용이 없다).

한꺼번에 다 날아간다(많은 상고들: 돈줄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방백이나 대장: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 추울 때는 울타리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막상 필요할 때는 사라지고 없다!

11. 목자가 쉬는 것도 문제인가?

양 떼가 흩어지고 있는데도 쉬는 게 문제: 문맥상으로는 단순한 잠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잡고, 시 76:6). 어떤 역본들은 아예 '목자들은 죽었고 귀족들은 영원히 잡들었다'고 옮겼다. 왕이

다쳤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니느웨의 멸망을 가리키는 비유일 뿐이다.

12. 앓수르 왕이 중병에 든 것을 듣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가?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 이제 너도 한번 죽어 봐라!